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취업성과분석

이 영 민¹⁾ · 임 정 연²⁾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입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준비행동 실태를 파악하고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4차(2007년)~7차년도(2010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준비 실태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대생들은 주로 학점관리 및 전공공부, 영어공부, 자격증 취득 등 “취업사전관리” 준비행동 비율은 높았으나, 구직경험, 정보검색, 상담실 활용, 워크넷 및 고용지원센터 활용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비율은 낮았으며, 이러한 특징은 전문대 졸업생에 비하여 4년제 학생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3점 내외로 보통의 수준이었으나, 임금만족도는 “불만족” 상태로 이들은 초기 일자리에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들의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유형 및 전공, 미래직업에 인식 및 직업정보 검색이었으며, 그 외의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주요어 :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 직업세계로의 이행, 취업성과

I. 서 론

2000년 후반 80%이상인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 2011년 기준 72.5%³⁾까지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진학률로 판단할 때, 한국사회는 이미 고학력사회로 전환되었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국가적인 교육열 외에도 진학여부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시 발생하는 임금차이,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위신,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일하게 되는 직업의 지위가 높고, 선택적 결혼과 같이 혼인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김경근, 변수용, 2007).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 진학을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성공적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조기 취업준비를 위해 취업 사교육비를 지출하

1)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부교수

2)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원

3) 전년 대비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2월 졸업 시점의 대학 합격자가 아닌 4월 시점의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진학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재수나 취업 등으로 인해 실제 진학을 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면서 진학률이 전년 대비 7% 낮아졌다. 그러나 예전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진학률은 77% 이하기가 되므로, 대학 진학률은 하향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고, 학점관리, 인턴십, 공인영어성적과 같은 취업 스펙을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후에도 높은 청년실업, 과잉학력, 희망 직업과 대학 전공의 불일치 등 청년 인적자원 활용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초기경력자들도 3년 이내에 조기퇴직하고 신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취업실패로 인해 대학원 진학률이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은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박환보, 2011).

그런데 대졸 여성의 직업세계 이행과정은 일반적인 남성 대졸자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여고생의 대학진학률은 남고생보다 높은 정도로 상승 추세에 있다. 2010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0.5%로서 남학생 77.6%보다 2.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여학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대학교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취업 진로나 경력개발과 관련된 지도나 관심이 적다.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인 진로결정,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이 대학교 남학생보다 늦게 이루어지고, 직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직업 가치관도 안정된 직업지위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여대생들이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직업은 교사, 공무원, 의사 등이다(신선미, 정경아, 박수미, 최윤정, 2007).

대학차원에서는 남학생 위주의 취업지원과 정보부족, 개인차원에서는 소극적인 취업 준비, 취업과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대학교 남학생보다 여대생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민, 이수영, 2010). 또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학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낮고,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박환보, 2011). 아울러 모든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의 20%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장수명, 2010), 전공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첫 직장의 월급 프리미엄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Lois, 2000). 정부에서는 기존에 지적되어 온 여대생 취업문제들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탐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의 경우, 여대생 취업과 관련된 실태분석, 여대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탐색하거나, 대학교 남학생과의 성별 차이 분석, 취업과 관련된 여대생의 취업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여대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취업 여부 자체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나 임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토대로 취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취업에 성공한 여대생의 특성들을 분류하고 예측하여 나무모형으로 간결하게 도식화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은 관심이 되는 집단을 몇 가지 규칙에 따라 분류하는 분석방법으로,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 및 노동시장 이탈의 문제는 인적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고급인적자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여대생이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하기 위한 취업준비행동(적성검사 및 상담, 다양한 구인정보의 제공, 교육훈련정보 및 기회제공, 취업준비 행동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및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부지원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취업준비행동은 취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여대생과 취업

여대생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 취업, 청년고용, 교육과 고용의 연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과 같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대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차이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대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연구들도 다수 있다. 여대생의 취업과 관련된 이론에는 인적자본론, 통계적 차별 이론, 혼잡이론, 이중노동시장론, 페미니즘이론, 사회인지이론 등이 있다(강이수, 신경아, 2001; 박미경, 이현림, 2008). 이론적인 논의 외에도 대학교 여학생의 취업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론들의 검토를 통해 노동공급 측면에서 개인배경과 구직 준비요인을,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조직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박가열, 천영민, 2009).

첫째,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에 애로를 겪는 것은 인적 자본량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완전경쟁시장인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인적 자본량의 부족으로 인해 직업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Garcia-Aracil, 2008). 다시 말해, 대학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육훈련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가 부족하고, 그 결과 취업성과 외에도 임금 부족이 당연하게 나타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Walters, 2006). 채창균과 김태기(2009)의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축적의 대리변수로서 학점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 여학생의 학점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통계적 차별 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은 고용주들이 여대생을 채용할 때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 그 여대생이 속한 집단의 특성을 통해 차별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이다. 채용을 하더라도 직무배치 시, 퇴직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은 단순하고 숙련도가 낮은 직무에 배치하고, 승진기회에서도 배제한다는 것이다(Oettinger, 1996). 장보운(2007)은 여성들이 취업 시 경험하게 되는 차별의 종류를 직업과 직무분리 차별, 연령차별, 학력차별, 용모차별 등으로 분류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채용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남녀분리 모집 등의 차별적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천수(2011)의 연구에서도 취업 시, 외모차별 경

험자는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취업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혼잡이론(the crowding hypothesis)은 여성 개개인이 취업을 할 때,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고 직무 자체가 가사와 육아 부담이 적은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 결과, 여성들이 취업 시에 특정 직업에 과도하게 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임금하락이 가속화된다고 보고 있다. 김영실과 임성문(2001)은 남성중심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여대생들의 직업결정과정에서 연구를 통해, 이들이 자신의 기질과 포부를 인식하고 내적결의를 하며 가정과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도전과 극복의 단계로 거쳐 내적, 외적 갈등을 소화하며 남성중심 직업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혼잡이론 의의와 제한점에 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넷째,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market theory)은 노동시장 자체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정되고 높은 임금을 받고 괜찮은 1차 노동시장과 달리 여성들은 열악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노동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학교 여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남학생보다 임금이 낮은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임정준(2010)은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고등교육 투자수익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가 노동생산성과 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나, 임금분포 추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은 고학력 고소득 직종과 저학력 저소득 직종의 이질적인 이중노동시장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페미니즘 이론(feminism theory)에 따르면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차별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여성의 노동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본다. 감정노동이나 가사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에 대해 여성의 관점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사회인지이론이 있다.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적 차원의 변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적 요인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여대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는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흥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인 장벽들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여대생과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은 취업을 하기위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직업기초역량을 갖추는 과정이다(이수영, 이영민, 2009). 취업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실시하는 진로준비행동이 있다(김봉환, 1997). 두 개념 모두 취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은 유사하나,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진로준비행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제경, 이승구, 2007). 이 외에도 취업준비, 구직활동, 취업활동 등과 같은 개념도 취업준

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

취업준비행동의 요소로는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1) 전공공부, 학점관리, 휴학, 어학연수, 영어 성적, 자격취득, 인턴십, 파트타임 체험 등과 같은 취업사전관리, 2) 미래 직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수집, 직업전망 이해, 직업과 전공의 관련성 파악 등 취업정보탐색, 3) 시험준비, 취업 네트워킹, 설명회 참석, 원서제출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연진, 2008; Mano-negrin & Tzafir, 2004; Mau & Kopischke, 2001). 첫째, 취업사전관리는 최종 취업을 위해 전공공부, 학점관리, 영어 공부(회화, 토익, 토플, 텡스 등), 제2외국어 공부(일어, 중국어 등),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 희망 직업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이수, 해외 유학, 해외 어학연수, 직무경험 쌓기(아르바이트, 인턴 등) 등의 활동이다.

둘째, 취업정보탐색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미래직업에 대한 전망, 미래직업과 관련된 업무내용, 미래 직업에 대한 보수, 미래직업과 대학생 자신의 전공과의 연관성과 직무일치도 등을 파악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취업탐색은 정보수집과 구체적인 취업결정에 이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셋째, 구직활동은 실제 취업 직전에 이루어지는 행동들로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검색하고, 학교 교수님의 추천을 받거나 취업계시판을 확인하거나, 신문이나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대학 선배를 통해 구직정보를 얻는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기업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대학 취업센터 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취업준비행동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연구들이 있다.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도 포함된다. 대학생의 취업준비와 관련된 조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04년 김태기, 류장수, 이종훈, 이영대(2004)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학점관리, 영어성적 취득, 휴학, 아르바이트를 하는 실태를 분석하였고,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이 약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취업 관련 요인별로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간 취업준비의 성차는 적은 편이라고 하였으나, 여자대학생의 경우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주무현, 강민정, 박세정(2008)의 연구에서 대학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취업희망 직업에서 하는 일이나 요구능력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나 희망직업과 자신의 전공과의 일치도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민간 대기업보다 정부기관이나 공사 입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전공학점과 영어성적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여학생들은 제2외국어와 직업교육훈련에 준비를 더 하고 있었다. 취업 준비 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어실력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외모와 신체와 관련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았다.

신선미, 정경아, 박수미, 최윤정(2007)은 1,236명의 전문대학 여학생과 812명의 4년제 대학교 여학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다수의 여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경험이 있고, 취업정보 확보를 위해 민간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며,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2011)의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30% 정도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주로 공식적 취업경로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으며, 평균 10시간 이상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구(2010)의 연구에서는 취업에 불리한 계층인 대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준비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고, 무료취업사이트 이용률 및 직업적성검사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여대생의 취업준비와 관련된 주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준비행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제경과 이승구(2008)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첫 직장 만족도의 관련성과 관련해서, 취업원서 지원횟수는 첫 직장 만족도와 정적 상관인 반면, 면접 본 횟수, 학원비용은 부적 상관이었으나 상관계수는 0에 근접하여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하, 김병찬, 김봉준(2008)의 연구에서는 학점, 전공, 취업경로가 취업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개채용 경로나 미디어 매체 경로를 활용할 경우 졸업자들이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자의 학점이 높을수록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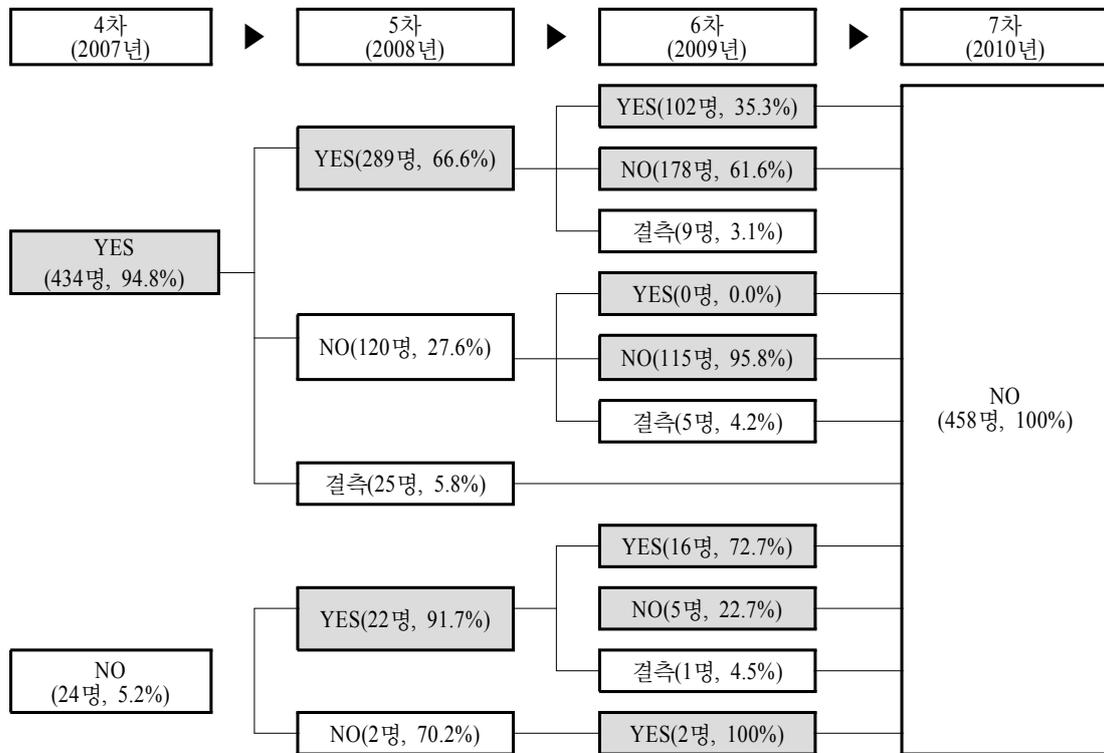
채창균과 김태기(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대학 여학생은 학교 소재지나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성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평점과 학교 취업지원활동 요인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해외어학연수 경험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경험 등은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년제 대학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 취업지원활동이 취업성공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수전공이나 재학 중 일자리 경험, 공무원 시험 준비경험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분석, 직업카드 개발 등의 연구가 있다. 이제경과 이승구(2008)는 대학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취업목표 설정이나 취업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대학교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미래 유망과 신생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윤우와 진석연(2011)은 여자대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카드를 개발하였다. 직업카드에는 16개 분야의 119개의 직업을 카드로 구성하였고, 효과성 분석을 통해 진로를 확고하게 하거나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직업카드를 통해 여자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사용하였다. KEEP은 동일 학생을 매년 추적 조사하여 수집된 종단면 데이터로서,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및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을 조사 표본으로 구성하여 학생의 가정 배경, 교육 경험, 진학 과정 및 대학 경험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7차 추적조사(2010년)에서 대졸자의 사회진입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2004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대상은 2차 추적조사 이후 대학진입이 가능했던 집단으로 이들이 졸업 이후 바로 사회에 진입하였다면 7차 추수조사(2010년)에는 초기 경력자(사회 진입 1년-3년 이내)에 이르게 된다. 남학생의 경우 군대 등의 문제로 휴학, 재학 및 미취업 중에 있는 확률이 높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설문구성의 통합조사가 실시된 4차(2007년) 부터 6차(2009)년도까지 3년의 추적조사 기간 중 한번이라도 대학생 신분이었다가 7차 추수년도(2010년)에는 대학을 졸업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대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취업준비행동 실태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대상 선정 방법-조사당시 학교재학 여부

연구대상자는 총 458명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은 60.1%(261명), 전문대학 졸업 여학생은 39.9%(173명)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대학 졸업생이 34.1%(148명), 비수도권대학 졸업생이 65.9%(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특성에 의하면 사회계열 전공자가 전체의 27.2%(11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의학계열(15.7%, 68명), 예체능계열(14.5%, 63명), 교육계열(12.2%, 53명), 자연계열(11.8%, 51명), 공학계열(11.3%, 49명), 인문계열(7.4%, 32명)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학생의 76.9%는 조사 당시 취업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23.1%(106명)는 미취업 상태에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			N	%
학교유형	전문대	173	39.9	전공	인문계열	32	7.4
	4년제	261	60.1		사회계열	118	27.2
	합계	434	100		교육계열	53	12.2
재학소재지	수도권	148	34.1		공학계열	49	11.3
	비수도권	286	65.9		자연계열	51	11.8
	합계	434	100		의학계열	68	15.7
현재 취업여부	미취업자	106	23.1		예체능계열	63	14.5
	졸업후취업자	352	76.9		합계	434	100
	합계	458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문내용을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는 설문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여대생의 취업준비 행동은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취업사전관리(요인 1), 취업정보 탐색(요인 2), 직접구직활동(요인 3) 등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의 취업준비 행동은 연구대상이 대학생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4차-6년도의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취업과 관련된 변수는 7차년도 설문을 통해 구성하였다.

〈표 2〉 주요변수 구성 및 내용

구분	주요변수 내용	활용설문지	변수구성	
개인변수	학교유형(전문대, 4년제)	(4차)		
	학교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	(4차)		
	전공	(4차)		
취업준비행동	전공공부	(4,5,6차)	전공수업태도평균 (5점 척도)	
	학점관리(평균)	(4,5,6차)	학점평균(평점/만점*100)	
	휴학경험	(4,5,6차)	4차-6차 설문 중 한 번이라도 경험 있으면 =1, 없으면=0	
	교내아르바이트 경험	(4,5,6차)		
	취업관련 영어공부 경험	(4,5,6차)		
	취업관련 제 2외국어 경험	(4,5,6차)		
	취·창업 훈련참여	(4,5,6차)		
	자격증 취득	(4,5,6차)		
	어학연수 경험	(4,5,6차)		
	(요인2) 취업정보탐색	미래직업 결정여부	(5,6차)	5-6차 설문 중 한 번이라도 경험 있음=1, 없음=0
		미래직업 구체적인계획여부	(5,6차)	
		미래직업 업무 내용 인지여부	(5,6차)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5,6차)	5,6차 자료의 평균 (5점 척도)
		미래직업의 현재 일(전공)과의 관련성	(5,6차)	
	(요인3) 직접구직활동	구직활동경험여부	(4,5,6차)	4차-6차 설문 중 한 번이라도 경험있으면 =1, 없으면=0
직업훈련경험여부		(4,5,6차)		
취업정보 검색여부		(4,5,6차)		
취업부탁경험여부		(4,5,6차)		
학교지원서비스 이용경험		(4,5,6차)		
방문부탁 경험여부		(4,5,6차)		
면접훈련 경험여부		(4,5,6차)		
적성흥미검사 경험		(4,5,6차)		
현재박람회 경험		(4,5,6차)		
구직정보 인터넷업로드		(4,5,6차)		
인터넷검색경험		(4,5,6차)		
고용안정센터 활용경험		(4,5,6차)		
사설취업사이트 정보검색		(4,5,6차)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경험	(4,5,6차)			
취업변수	취업여부	(7차)	미취업=0, 취업=1	
	근무형태(정규직, 비정규직)	(7차)	비정규직=0, 정규직=1	
	월 평균임금	(7차)	(단위: 만원)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고용패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변인들을 구성하여 가공을 거친 후 기술통계량분석을 통해 기본가정 준수 여부를 파악하였다. 분석은 기초통계분석, 빈도분석, t분석(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취업성과 및 여대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및 분류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나무의사 결정모형, 판별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도표화하여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거나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으로, 이의 장점은 해석이 용이하고 교호효과와 해석이 가능하며 비모수적인 모형(nonparametric model), 즉 선형성(linearity)이나 정규성(normality) 또는 등분산성(equal variance) 등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설명변수가 연속형이거나 순서형인 경우, 측정 자료의 순위만을 분석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상치에 민감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세분화, 분류, 예측, 차원축소 및 변수선택, 교호작용효과와 파악, 범주의 병합 또는 연속형 변수의 이산화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분석의 정확도보다는 분석과정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김영남, 2002). 그러나 단점으로는 연속형 변수를 비연속적인 값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리의 경계점 근방에서는 예측 오류가 클 가능성이 있고, 분석용 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의 예측에서는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나성룡, 전용진, 2003).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취업여부를 예측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소프트웨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본분석

가. 여대생의 취업준비 행동실태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분한 3가지의 준비행동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각 변수를 취업사전관리(제 1요소), 취업정보탐색(제 2요소), 직접구직활동(제 3요소)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취업사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대학시절 전공공부에 평균 3.57점으로 평균 이상의 준비행동을 유지하고 있었으며(5점 만점), 학점(평균/만점*100)도 100점 만점 중 평균 81.52점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

〈표 3〉 취업사전관리 실태(1)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공공부	458	1.5	5	3.57	0.49
학점평균	437	27.41	100	81.52	10.10

학점을 점수별로 4점 척도로 재구성한 특성에 따르면, 평균 80이상-90미만을 보인 학생이 41.9%(183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90점 이상의 높은 학점관리를 보인 학생도 19.5%(85명)에 달해 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점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은 취업을 위한 영어교육은 57.0%(254명), 자격증 취득은 40.4%(185명)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내아르바이트 경험(19.0%, 87명), 취·창업관련 훈련경험(13.1%, 60명), 해외연수경험(6.9%, 29명)은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다.

〈표 4〉 취업사전관리 실태(2)

		N	%			N	%
학점구분	60점 미만	12	2.7	취·창업관련 훈련경험	없음	398	86.9
	60이상-80미만	157	35.9		있음	60	13.1
	80이상 90미만	183	41.9				
	90이상	85	19.5				
	합계	437	100				
휴학여부	없음	333	72.7	자격증유무	없음	273	59.6
	있음	125	27.3		있음	185	40.4
	합계	458	100		합계	458	100
교내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371	81.0	해외연수경험	없음	392	93.1
	있음	87	19.0		있음	29	6.9
	합계	458	100		합계	421	100
영어교육경험	없음	192	43.0	제2외국어교육 경험	없음	366	79.9
	있음	254	57.0		있음	92	20.1
	합계	446	100		합계	458	100

둘째, 취업정보탐색 실태 분석결과, 대학시절 미래직업을 미리 결정하고 있는 비율은 68.3%(313명),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경우도 61.6%(282명)로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미래직업 업무내용(3.94점), 전망과 보수(3.81점), 직업과 전공의 관련성(4.08점) 등의 인식도 5점 척도 중 평균 3점 후반대로 관심도가 높았다.

〈표 5〉 취업정보탐색 실태

		N	%			N	%
미래직업 결정여부	없음	145	31.7	미래직업 구체적인 계획여부	없음	176	38.4
	있음	313	68.3		있음	282	61.6
	합계	458	100		합계	458	100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미래직업 업무 내용 인지여부		311	2	5	3.94	0.61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310	2	5	3.81	0.66	
미래직업의 현재 일(전공)과의 관련성		311	1	5	4.08	1.08	

셋째, 취업준비행동 요소인 직접적인 구직활동 실태 분석결과, 실제 구직활동 경험이 72.5%(332명), 취업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이 56.8%(260명)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과반수가 넘었을 뿐, 직업훈련 경험, 면접훈련 경험, 박람회 참석, 워크넷 검색, 학교지원 서비스 이용 및 고용안정센터 이용 등 나머지 구직활동은 20% 내외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접구직활동 실태

		N	%			N	%
구직활동 경험여부	아니오	126	27.5	적성흥미검사 경험여부	아니오	351	76.6
	예	332	72.5		예	107	23.4
	합계	458	100		합계	458	100
직업훈련 경험여부	아니오	412	90.0	현재박람회 경험여부	아니오	409	89.3
	예	46	10.0		예	49	10.7
	합계	458	100		합계	458	100
면접훈련 경험여부	아니오	385	84.1	구직정보인터넷에 올린경험여부	아니오	356	77.7
	예	73	15.9		예	102	22.3
	합계	458	100		합계	458	100
취업정보 검색경험	아니오	198	43.2	워크넷검색 경험여부	아니오	369	80.6
	예	260	56.8		예	89	19.4
	합계	458	100		합계	458	100
취업부탁 경험여부	아니오	347	75.8	고용안정센터 이용경험여부	아니오	434	94.8
	예	111	24.2		예	24	5.2
	합계	458	100		합계	458	100
학교지원 서비스이용	아니오	364	79.5	사설취업사이트 정보검색경험여부	아니오	262	57.2
	예	94	20.5		예	196	42.8
	합계	458	100		합계	458	100
방문부탁 경험여부	아니오	359	78.4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경험여부	아니오	438	95.6
	예	99	21.6		예	20	4.4
	합계	458	100		합계	458	100

나.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대생의 초기 일자리 실태분석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대생들의 초기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여대생의 사회진입 초기 일자리 현황

		N	%			N	%
취업 경로	공개채용(취직시험)	132	38.9	직장의 분류 형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10	62.1
	소개나 추천	101	29.8		공무원(경찰, 직업군인)	10	3.0
	스카우트	8	2.4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	25	7.4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	69	20.4		외국기업	4	1.2
	기타	29	8.6		법인단체(사단, 재단법인)	70	20.7
	합계	339	100	기타	19	5.6	
일자리 형태	상용직	286	84.4	근무 형태	합계	338	100
	임시직	51	15.0		정규직	261	77.0
	일용직	2	0.6		비정규직	78	23.0
	합계	339	100		합계	339	100
현 일자리 인턴 여부	인턴과정을 마치고 현재 근무 중임	120	35.6	직장 수도권 여부	수도권	177	50.3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임	15	4.5		비수도권	175	49.7
	인턴과정 없이 현재 근무 중임	202	59.9		합계	352	100
	합계	337	100	직장 규모	1-29	153	45.9
근로 시간 형태	시간제	28	8.3		30-99	51	15.3
	전일제	311	91.7		100-299	33	9.9
	합계	339	100		300이상	96	28.8
					합계	333	100

분석결과, 여대생의 취업경로는 공개채용(38.9%), 소개나 추천(29.0%),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 (20.4%) 순이었다. 과거의 대부분의 취업경로가 공개적인 채용방법을 활용했던 것에 비하여 좀 더 다양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62.1%(210명)가 민간회사에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전체 취업지의 77.0%(261명)은 정규직, 23.0%(78명)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과반수에 가까운 45.9%(153명)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 중인 반면, 28.8%(96명)은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 재직 중 이었다. 최근 정부의 청년인턴제 사업의 반영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인 "현 일자리의 인턴"여부 결과에 따르면, 인턴과정을 마치고 현 일자리에 근무 중인 경우가 35.6%(120명), 현재에도 인턴과정 중에 있는 여대생이 4.5%(15명)였으며, 59.9%(202명)는 인턴 없이 바로 현재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일자리의 수준은 일과 전공의 일치하는 정도가 53.1%(180명)로 과반수를 조금 넘고 있었으며, 일과 보유 기술 능력과는 66.1%, 교육수준은 70.8%가 일치하고 있었다.

〈표 8〉 현재 일자리의 수준

		N	%
일과 전공 일치도	전혀 그렇지 않다	23	6.8
	그렇지 않다	51	15.0
	보통이다	85	25.1
	그렇다	117	34.5
	매우 그렇다	63	18.6
	합계	339	100
일과 기술, 능력 수준	내 수준보다 높다	57	16.8
	내 수준과 비슷하다	224	66.1
	내 수준보다 낮다	52	15.3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	6	1.8
	합계	339	100
일과 교육 수준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	2	0.6
	내 수준보다 높다	48	14.2
	내 수준과 비슷하다	240	70.8
	내 수준보다 낮다	45	13.3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	4	1.2
	합계	339	100

일자리의 질을 예측하기 위한 월 임금과 만족도에 따르면, 임금은 평균 월 132.24만원, 직장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29점으로 보통 수준인 반면, 임금(2.99점), 복지후생(3.03점)의 만족도는 낮아 이들은 초기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표 9〉 현 일자리의 질(임금 및 만족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임금		313	20	260	132.24	39.02
만족도	업무 전반적인 만족도	339	1	5	3.29	0.82
	근무환경	339	1	5	3.42	0.90
	근무시간	339	1	5	3.31	1.02
	의사소통/인간관계	339	1	5	3.50	0.90
	임금	339	1	5	2.99	0.90
	개인의 발전 가능성	339	1	5	3.18	0.95
	복지후생	339	1	5	3.03	0.99

2.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분석

가. 학교유형에 따른 취업준비 행태 차이분석

학교유형에 따른 취업준비 행동 중 취업사전관리 및 취업정보탐색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 학교유형에 따른 취업준비 행태차이(1)

			N	평균	표준편차	t
취업사전 관리	전공공부	전문대	173	3.50	0.52	-2.462*
		4년제	261	3.62	0.46	
	학점평균	전문대	163	81.56	11.61	0.098
		4년제	256	81.46	8.60	
취업정보 탐색	미래직업 업무 내용 인지여부	전문대	110	4.07	0.61	2.739**
		4년제	186	3.87	0.61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전문대	110	4.00	0.67	3.784***
		4년제	185	3.71	0.62	
	미래직업의 현재 일(전공)과의 관련성	전문대	110	4.24	0.95	1.739
		4년제	186	4.02	1.12	

〈표 11〉 학교유형에 따른 취업준비 행태차이(2)

			전문대		4년제		전체		X ²
			N	%	N	%	N	%	
취업 사전 관리	휴학여부	없음	139	80.3	179	68.6	318	73.3	7.352**
		있음	34	19.7	82	31.4	116	26.7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150	86.7	197	75.5	347	80.0	8.181**
		있음	23	13.3	64	24.5	87	20.0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영어교육 경험	없음	104	62.7	73	28.4	177	41.8	48.601***
		있음	62	37.3	184	71.6	246	58.2	
		전체	166	100	257	100	423	100	
	제2외국어 교육경험	없음	148	85.5	198	75.9	346	79.7	6.040*
		있음	25	14.5	63	24.1	88	20.3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취창업 교육훈련 경험	없음	149	86.1	226	86.6	375	86.4	0.019
		있음	24	13.9	35	13.4	59	13.6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자격증 유무	없음	110	63.6	143	54.8	253	58.3	3.310	
	있음	63	36.4	118	45.2	181	41.7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해외연수 경험	없음	153	95.0	217	91.6	370	93.0	1.765	
	있음	8	5.0	20	8.4	28	7.0		
	전체	161	100	237	100	398	100		
취업 정보 탐색	미래직업 결정여부	없음	62	35.8	74	28.4	136	31.3	2.709
		있음	111	64.2	187	71.6	298	68.7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미래직업 구체적인 계획여부	없음	76	43.9	88	33.7	164	37.8	4.617*
		있음	97	56.1	173	66.3	270	62.2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표 12〉 학교유형에 따른 직접 구직활동 차이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		전체		X ²
		N	%	N	%	N	%	
구직활동 경험여부	아니오	26	15.0	93	35.6	119	27.4	22.192***
	예	147	85.0	168	64.4	315	72.6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직업훈련 경험여부	아니오	154	89.0	235	90.0	389	89.6	0.117
	예	19	11.0	26	10.0	45	10.4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취업정보 검색경험 여부	아니오	59	34.1	129	49.4	188	43.3	9.947**
	예	114	65.9	132	50.6	246	56.7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취업부탁 경험여부	아니오	119	68.8	209	80.1	328	75.6	7.185**
	예	54	31.2	52	19.9	106	24.4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학교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아니오	125	72.3	217	83.1	342	78.8	7.383**
	예	48	27.7	44	16.9	92	21.2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방문부탁 경험여부	아니오	122	70.5	220	84.3	342	78.8	11.811**
	예	51	29.5	41	15.7	92	21.2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면접훈련 경험여부	아니오	141	81.5	226	86.6	367	84.6	2.062
	예	32	18.5	35	13.4	67	15.4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적성흥미검사경 험여부	아니오	131	75.7	203	77.8	334	77.0	0.248
	예	42	24.3	58	22.2	100	23.0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현재박람회경험 여부	아니오	153	88.4	234	89.7	387	89.2	0.159
	예	20	11.6	27	10.3	47	10.8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구직정보 인터넷 업로드여부	아니오	133	76.9	208	79.7	341	78.6	0.490
	예	40	23.1	53	20.3	93	21.4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워크넷검색경험 여부	아니오	144	83.2	204	78.2	348	80.2	1.687
	예	29	16.8	57	21.8	86	19.8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고용안정 센터이용 경험여부	아니오	166	96.0	247	94.6	413	95.2	0.392
	예	7	4.0	14	5.4	21	4.8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사설취업 사이트정보 검색경험	아니오	88	50.9	161	61.7	249	57.4	4.979*
	예	85	49.1	100	38.3	185	42.6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사설취업 알선기관 상담경험	아니오	160	92.5	256	98.1	416	95.9	8.205**
	예	13	7.5	5	1.9	18	4.1	
	전체	173	100	261	100	434	100	

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제 졸업생은 전문대 학생에 비하여 전공공부에 더욱 열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년제=3.62>전문대=3.50), 학점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취업정보 탐색요인인 미래직업과 관련한 업무 내용, 전망, 보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전문대 학생이 4년제 졸업생에 비하여 적극적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이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취업사전관리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표 11〉), 전문

대 학생에 비하여 4년제 학생들은 휴학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고,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 취업을 위한 영어공부 및 제 2외국어 공부에 있어서도 전문대 학생에 비하여 적극적이었으며, 미래직업 결정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도 더 많은 비율이 미리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직접적인 구직활동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에 의하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표 12>), 실제 구직활동경험, 취업정보 검색경험, 취업부탁 경험, 학교지원 서비스 이용, 방문부탁 경험, 사설취업 사이트정보 검색 및 사설취업 알선기관 상담경험 등 대부분의 실질적인 직접 구직활동에 있어서 전문대 졸업생들은 4년제 졸업생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 행태 차이분석

학교소재지의 수도권여부에 따른 여대생의 취업사전관리 및 취업정보 탐색 차이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3> 참고).

<표 13>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 행태차이(1)

		N	평균	표준편차	t	
취업 사전 관리	전공공부	비수도권	286	3.58	0.47	0.219
		수도권	148	3.57	0.53	
	학점평균	비수도권	276	81.83	8.69	0.871
		수도권	143	80.86	11.81	
취업 정보 탐색	미래직업 업무 내용 인지여부	비수도권	204	3.96	0.61	0.555
		수도권	92	3.91	0.61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비수도권	204	3.84	0.66	0.739
		수도권	91	3.77	0.64	
	미래직업의 현재 일(전공)과의 관련성	비수도권	204	4.08	1.07	-0.491
		수도권	92	4.15	1.06	

반면, 학교소재지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사전관리 요인에 따르면(<표 14>), 제 2외국어 교육이나 해외연수는 수도권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반면, 자격증 취득은 비수도권 학생들의 취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미래 직업관련 결정 및 준비정도는 비수도권 학생들의 결정비율이 수도권 졸업생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이들의 직접적인 구직활동 행동의 차이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취업부탁 경험여부에 있어서만 비수도권 학생들이 경험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4〉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 행태차이(2)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X ²
			N	%	N	%	N	%	
취업 사전 관리	휴학여부	없음	219	76.6	99	66.9	318	73.3	4.668*
		있음	67	23.4	49	33.1	116	26.7	
		전체	286	100	148	100	434	100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230	80.4	117	79.1	347	80.0	0.113
		있음	56	19.6	31	20.9	87	20.0	
		전체	286	100	148	100	434	100	
	영어교육 경험	없음	124	44.1	53	37.3	177	41.8	1.195
		있음	157	55.9	89	62.7	246	58.2	
		전체	281	100	142	100	423	100	
	제2외국어 교육경험	없음	236	82.5	110	74.3	346	79.7	4.050*
		있음	50	17.5	38	25.7	88	20.3	
		전체	286	100	148	100	434	100	
취창업 교육훈련 경험	없음	246	86.0	129	87.2	375	86.4	0.109	
	있음	40	14.0	19	12.8	59	13.6		
	전체	286	100	148	100	434	100		
자격증 유무	없음	156	54.5	97	65.5	253	58.3	4.850*	
	있음	130	45.5	51	34.5	181	41.7		
	전체	286	100	148	100	434	100		
해외연수 경험	없음	251	95.4	119	88.1	370	93.0	7.247**	
	있음	12	4.6	16	11.9	28	7.0		
	전체	263	100	135	100	398	100		
취업 정보 탐색	미래직업 결정여부	없음	81	28.3	55	37.2	136	31.3	3.543
		있음	205	71.7	93	62.8	298	68.7	
		전체	286	100	148	100	434	100	
	미래직업 구체적인 계획여부	없음	101	35.3	63	42.6	164	37.8	2.182
		있음	185	64.7	85	57.4	270	62.2	
전체	286	100	148	100	434	100			

〈표 15〉 학교소재지에 따른 직접 구직활동 차이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X ²
		N	%	N	%	N	%	
구직활동 경험여부	아니오	90	29.0	36	24.3	126	27.5	1.113
	예	220	71.0	112	75.7	332	72.5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직업훈련 경험여부	아니오	280	90.3	132	89.2	412	90.0	0.142
	예	30	9.7	16	10.8	46	10.0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취업정보 검색경험 여부	아니오	137	44.2	61	41.2	198	43.2	0.362
	예	173	55.8	87	58.8	260	56.8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취업부탁 경험여부	아니오	225	72.6	122	82.4	347	75.8	5.295*
	예	85	27.4	26	17.6	111	24.2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표계속)

(표계속)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X ²
		N	%	N	%	N	%	
학교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아니오	253	81.6	111	75.0	364	79.5	2.686
	예	57	18.4	37	25.0	94	20.5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방문부탁 경험여부	아니오	240	77.4	119	80.4	359	78.4	0.527
	예	70	22.6	29	19.6	99	21.6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면접훈련 경험여부	아니오	265	85.5	120	81.1	385	84.1	1.449
	예	45	14.5	28	18.9	73	15.9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적성흥미검사경 험여부	아니오	245	79.0	106	71.6	351	76.6	3.073
	예	65	21.0	42	28.4	107	23.4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현재 박람회경험여부	아니오	279	90.0	130	87.8	409	89.3	0.490
	예	31	10.0	18	12.2	49	10.7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구직정보 인터넷 업로드여부	아니오	249	80.3	107	72.3	356	77.7	3.727
	예	61	19.7	41	27.7	102	22.3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워크넷 검색 경험여부	아니오	249	80.3	120	81.1	369	80.6	0.037
	예	61	19.7	28	18.9	89	19.4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고용안정 센터이용 경험여부	아니오	291	93.9	143	96.6	434	94.8	1.526
	예	19	6.1	5	3.4	24	5.2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사설취업 사이트정보검색 경험	아니오	182	58.7	80	54.1	262	57.2	0.887
	예	128	41.3	68	45.9	196	42.8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사설취업 알선기관 상담경험	아니오	297	95.8	141	95.3	438	95.6	0.069
	예	13	4.2	7	4.7	20	4.4	
	전체	310	100	148	100	458	100	

다. 전공에 따른 취업준비 행태 차이분석

또한 전공에 따른 취업준비 행태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는데(<표 16> 참고), 교육계열, 의학계열 학생들은 전공공부에 있어 다른 전공자들에 비하여 높은 준비정도를 보였으며, 이들의 미래 직업 관련 업무내용 인식, 직업전망과 보수에 대한 인식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전공에 비하여 직업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의 학생들은 희망 직업과 전공과 높은 연계성이 있다고 기대하였다.

〈표 16〉 전공에 따른 취업준비 실태(1)

			N	평균	표준편차	F
취업 사전 관리	전공공부	인문계열	32	3.53	0.61	2.399*
		사회계열	118	3.50	0.44	
		교육계열	53	3.64	0.44	
		공학계열	49	3.51	0.43	
		자연계열	51	3.53	0.48	
		의학계열	68	3.75	0.43	
		예체능계열	63	3.57	0.60	
	합계	434	3.57	0.49		
	학점평균	인문계열	31	81.48	10.03	0.743
		사회계열	113	81.03	8.82	
		교육계열	50	83.68	8.84	
		공학계열	46	81.48	12.56	
		자연계열	50	79.85	11.72	
		의학계열	67	81.26	9.39	
예체능계열		62	82.22	9.11		
합계	419	81.50	9.87			
취업 정보 탐색	미래직업 업무내용 인지여부	인문계열	19	3.84	0.60	4.980***
		사회계열	73	3.78	0.61	
		교육계열	45	4.20	0.54	
		공학계열	28	3.80	0.61	
		자연계열	31	3.76	0.59	
		의학계열	57	4.19	0.55	
		예체능계열	43	3.88	0.63	
	합계	296	3.94	0.61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인문계열	18	3.56	0.76	6.078***
		사회계열	73	3.66	0.65	
		교육계열	45	4.14	0.48	
		공학계열	28	3.71	0.53	
		자연계열	31	3.61	0.57	
		의학계열	57	4.09	0.65	
예체능계열		43	3.71	0.69		
합계	295	3.82	0.65			
미래직업의 현재 일(전공)과의 관련성	인문계열	19	3.53	1.12	6.796***	
	사회계열	73	3.79	1.18		
	교육계열	45	4.63	0.47		
	공학계열	28	3.66	1.28		
	자연계열	31	3.90	1.38		
	의학계열	57	4.45	0.73		
	예체능계열	43	4.30	0.82		
합계	296	4.10	1.07			

〈표 17〉 전공에 따른 취업준비 실태(2)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전체		X ²
		N	%	N	%	N	%	N	%	N	%	N	%	N	%	N	%	
휴학여부	없음	18	56.3	75	63.6	48	90.6	32	65.3	35	68.6	64	94.1	46	73.0	318	73.3	35.752***
	있음	14	43.8	43	36.4	5	9.4	17	34.7	16	31.4	4	5.9	17	27.0	116	26.7	
교내아르바이트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8.754
	없음	25	78.1	90	76.3	43	81.1	38	77.6	40	78.4	63	92.6	48	76.2	347	80.0	
경력	있음	7	21.9	28	23.7	10	18.9	11	22.4	11	21.6	5	7.4	15	23.8	87	20.0	54.078***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영어교육 경험	없음	8	26.7	35	30.2	35	66.0	14	29.8	10	19.6	42	66.7	33	52.4	177	41.8	17.041**
	있음	22	73.3	81	69.8	18	34.0	33	70.2	41	80.4	21	33.3	30	47.6	246	58.2	
제2외국어 교육경험	전체	30	100	116	100	53	100	47	100	51	100	63	100	63	100	423	100	4.163
	없음	19	59.4	93	78.8	48	90.6	40	81.6	37	72.5	60	88.2	49	77.8	346	79.7	
취창업 교육훈련 경험	있음	13	40.6	25	21.2	5	9.4	9	18.4	14	27.5	8	11.8	14	22.2	88	20.3	7.249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자격증 유무	없음	17	53.1	63	53.4	26	49.1	34	69.4	30	58.8	43	63.2	40	63.5	253	58.3	28.591***
	있음	15	46.9	55	46.6	27	50.9	15	30.6	21	41.2	25	36.8	23	36.5	181	41.7	
해외연수 경험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22.838**
	없음	21	72.4	101	93.5	51	100	35	85.4	45	95.7	61	96.8	56	94.9	370	93.0	
미래직업 결정여부	있음	8	27.6	7	6.5	0	-	6	14.6	2	4.3	2	3.2	3	5.1	28	7.0	14.661*
	전체	29	100	108	100	51	100	41	100	47	100	63	100	59	100	398	100	
미래직업 결정여부	없음	12	37.5	45	38.1	8	15.1	21	42.9	20	39.2	10	14.7	20	31.7	136	31.3	22.838**
	있음	20	62.5	73	61.9	45	84.9	28	57.1	31	60.8	58	85.3	43	68.3	298	68.7	
미래직업 구체적인 계획여부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14.661*
	없음	13	40.6	53	44.9	12	22.6	23	46.9	23	45.1	18	26.5	22	34.9	164	37.8	
구체적인 계획여부	있음	19	59.4	65	55.1	41	77.4	26	53.1	28	54.9	50	73.5	41	65.1	270	62.2	14.661*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취업
사전
관리

취업
정보
탐색

〈표 18〉 전공에 따른 직접 구직활동 차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전체		X ²	
	N	%	N	%	N	%	N	%	N	%	N	%	N	%	N	%		
구직활동 경험여부	아니오	9	28.1	32	27.1	20	37.7	18	36.7	11	21.6	18	26.5	11	17.5	119	27.4	9.032
	예	23	71.9	86	72.9	33	62.3	31	63.3	40	78.4	50	73.5	52	82.5	315	72.6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직업훈련 경험여부	아니오	30	93.8	106	89.8	50	94.3	44	89.8	45	88.2	62	91.2	52	82.5	389	89.6	5.546
	예	2	6.3	12	10.2	3	5.7	5	10.2	6	11.8	6	8.8	11	17.5	45	10.4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취업 정보검색 경험여부	아니오	13	40.6	49	41.5	30	56.6	20	40.8	16	31.4	29	42.6	31	49.2	188	43.3	8.050
	예	19	59.4	69	58.5	23	43.4	29	59.2	35	68.6	39	57.4	32	50.8	246	56.7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취업부탁 경험여부	아니오	26	81.3	86	72.9	40	75.5	41	83.7	41	80.4	50	73.5	44	69.8	328	75.6	4.681
	예	6	18.8	32	27.1	13	24.5	8	16.3	10	19.6	18	26.5	19	30.2	106	24.4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학교지원 서비스이용여부	아니오	25	78.1	100	84.7	41	77.4	41	83.7	35	68.6	50	73.5	50	79.4	342	78.8	7.571
	예	7	21.9	18	15.3	12	22.6	8	16.3	16	31.4	18	26.5	13	20.6	92	21.2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방문부탁 경험여부	아니오	26	81.3	101	85.6	38	71.7	44	89.8	39	76.5	50	73.5	44	69.8	342	78.8	12.845 *
	예	6	18.8	17	14.4	15	28.3	5	10.2	12	23.5	18	26.5	19	30.2	92	21.2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면접훈련 경험여부	아니오	29	90.6	101	85.6	43	81.1	44	89.8	42	82.4	58	85.3	50	79.4	367	84.6	4.025
	예	3	9.4	17	14.4	10	18.9	5	10.2	9	17.6	10	14.7	13	20.6	67	15.4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직성홍미 검사경험 여부	아니오	25	78.1	88	74.6	45	84.9	38	77.6	33	64.7	58	85.3	47	74.6	334	77.0	9.479
	예	7	21.9	30	25.4	8	15.1	11	22.4	18	35.3	10	14.7	16	25.4	100	23.0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박람회 경험여부	아니오	28	87.5	109	92.4	51	96.2	42	85.7	39	76.5	63	92.6	55	87.3	387	89.2	14.281 *
	예	4	12.5	9	7.6	2	3.8	7	14.3	12	23.5	5	7.4	8	12.7	47	10.8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구직정보 인터넷 업무드여부	아니오	26	81.3	83	70.3	50	94.3	38	77.6	39	76.5	61	89.7	44	69.8	341	78.6	20.736 **
	예	6	18.8	35	29.7	3	5.7	11	22.4	12	23.5	7	10.3	19	30.2	93	21.4	
	전체	32	100	118	100	53	100	49	100	51	100	68	100	63	100	434	100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사전관리 차이분석에 따르면(<표 17>), 교육계열 및 의학계열 전공자들의 휴학비율은 타 전공자들에 비하여 낮았으며, 미래직업 결정여부 및 미래직업관련 구체적인 계획여부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영어교육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 전공자들의 비율이 높아 이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영어점수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경우, 취업을 위한 영어교육과 제 2외국어 공부, 해외연수에 있어 많은 준비행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전공계열에 따른 직접 구직활동 차이분석에 의하면(<표 18>), 교육계열 및 예체능계열 전공자들의 “방문부탁 경험”이 다른 전공자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취업박람회 참여 경험은 자연계열 전공자들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또한 워크넷 활용, 사설취업기관의 취업정보 검색 비율 등의 일반적인 구직활동은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전공자들의 참여가 높았다.

라. 학교특성에 따른 취업여부 및 일자리 수준 비교

학교특성에 따른 취업여부를 분석한 결과(<표 19> 참조), 학교유형 및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여부에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비율이 86.7%로 4년제 졸업자의 71.3%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며,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전공자들의 취업비율 역시 타 전공자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X^2=19.702, p<.01$).

<표 19> 학교특성에 따른 취업여부

		현재 일자리 유무			X^2	현재 일자리 유무			X^2				
		취업	미취업	전체		취업	미취업	전체					
학교 유형	전문대	N	150	23	14.189 ***	대학 전공	인문계열	N	22	10	32	19.702 **	
		%	86.7	13.3			%	68.8	31.3	100			
	4년제	N	186	75			사회계열	N	89	29	118		
		%	71.3	28.7			%	75.4	24.6	100			
	전체	N	336	98			434	교육계열	N	41	12		53
		%	77.4	22.6			100	%	77.4	22.6	100		
대학 소재지	수도권	N	121	27	2.953	공학계열	N	42	7	49			
		%	81.8	18.2		%	85.7	14.3	100				
	비 수도권	N	231	79		310	자연계열	N	35	16	51		
		%	74.5	25.5		100	%	68.6	31.4	100			
	전체	N	352	106		458	의학계열	N	64	4	68		
		%	76.9	23.1		100	%	94.1	5.9	100			
	전체	N	336	98		434	예체능계열	N	43	20	63		
		%	77.4	22.6		100	%	68.3	31.7	100			
			N	336		98	434	전체	N	336	98	434	
			%	77.4		22.6	100	%	77.4	22.6	100		

또한 학교특성에 따른 임금차이 결과에서는 학교유형 및 수도권 여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공에 따른 차이를 뚜렷이 나타냈다. 특히, 의학계열(154.29만원) 및 공학계열(142.46만원)의 임금은 다른 전공계열의 임금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임금은 평균 117.75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20〉 학교특성에 따른 일자리의 질(임금차이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F
학교유형	전문대	134	133.90	37.34	0.438
	4년제	165	131.92	40.15	
수도권여부	수도권	98	138.00	44.44	1.770
	비수도권	215	129.61	36.09	
전공여부	인문계열	20	117.75	31.74	5.417***
	사회계열	81	124.21	36.41	
	교육계열	35	127.17	27.35	
	공학계열	37	142.46	40.09	
	자연계열	32	123.25	41.47	
	의학계열	58	154.29	40.40	
	예체능계열	36	129.92	37.85	
	합계	299	132.80	38.86	

학교유형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에 따르면(〈표 21〉 참조), 근무시간 만족도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4년제 졸업생의 근무시간 만족도(3.42점)는 전문대 졸업생의 3.17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른 일자리의 질에 따르면(〈표 22〉참조), 비수도권 졸업생들의 업무만족도(3.42점), 임금(3.08점), 개인발전가능성(3.27점), 전반적인 직장만족도(3.40점)가 수도권 학생들의 만족도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학교유형에 따른 일자리의 질(만족도)

	학교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업무 만족도	전문대	147	3.27	0.82	-0.328
	4년제	176	3.30	0.82	
근무환경	전문대	147	3.46	0.89	0.802
	4년제	176	3.38	0.94	
근무시간	전문대	147	3.17	1.04	-2.185*
	4년제	176	3.42	1.02	
의사소통/인간관계	전문대	147	3.53	0.86	0.470
	4년제	176	3.48	0.94	
임금	전문대	147	3.02	0.91	0.597
	4년제	176	2.96	0.90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전문대	147	3.16	0.95	- 0.555
	4년제	176	3.22	0.97	
복지후생	전문대	147	3.07	0.93	0.717
	4년제	176	2.99	1.04	
안정성	전문대	147	3.55	0.87	1.863
	4년제	176	3.35	1.02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	전문대	147	3.30	0.73	-0.279
	4년제	176	3.32	0.83	

〈표 22〉 학교소재지에 따른 일자리의 질(만족도)

	지역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업무 만족도	수도권	113	3.04	0.84	-4.184***
	비수도권	226	3.42	0.77	
근무환경	수도권	113	3.44	1.01	0.321
	비수도권	226	3.41	0.85	
근무시간	수도권	113	3.22	1.16	-1.022
	비수도권	226	3.35	0.95	
의사소통/인간관계	수도권	113	3.42	1.03	-1.149
	비수도권	226	3.54	0.83	
임금	수도권	113	2.82	0.94	-2.484*
	비수도권	226	3.08	0.88	
개인의 발전 가능성	수도권	113	3.01	1.02	-2.349*
	비수도권	226	3.27	0.91	
복지후생	수도권	113	2.91	1.10	-1.472
	비수도권	226	3.09	0.92	
안정성	수도권	113	3.44	1.04	0.120
	비수도권	226	3.43	0.91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	수도권	113	3.15	0.80	-2.788**
	비수도권	226	3.40	0.75	

그러나 전공에 따른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23>참조).

〈표 23〉 학교소재지에 따른 일자리의 질(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업무 만족도	인문계열	20	3.15	0.99	2.065	개인 발전 가능 성	인문계열	20	3.25	1.07	1.337
	사회계열	86	3.21	0.80			사회계열	86	3.06	0.91	
	교육계열	40	3.60	0.84			교육계열	40	3.38	0.95	
	공학계열	40	3.05	0.78			공학계열	40	2.93	1.00	
	자연계열	35	3.26	0.70			자연계열	35	3.31	1.05	
	의학계열	63	3.41	0.78			의학계열	63	3.32	0.89	
	예체능계열	39	3.23	0.90			예체능계열	39	3.21	0.95	
	합계	323	3.28	0.82			합계	323	3.19	0.96	
	합계	323	3.28	0.82			합계	323	3.19	0.96	
근무 환경	인문계열	20	3.55	0.83	0.861	복지 후생	인문계열	20	2.90	1.12	1.565
	사회계열	86	3.36	0.97			사회계열	86	3.14	0.96	
	교육계열	40	3.65	0.83			교육계열	40	3.10	0.98	
	공학계열	40	3.38	0.93			공학계열	40	2.83	1.03	
	자연계열	35	3.54	0.95			자연계열	35	2.97	1.04	
	의학계열	63	3.32	0.93			의학계열	63	3.21	0.85	
	예체능계열	39	3.33	0.84			예체능계열	39	2.72	1.07	
	합계	323	3.42	0.91			합계	323	3.02	0.99	
	합계	323	3.42	0.91			합계	323	3.02	0.99	
-근무 시간	인문계열	20	3.15	1.39	0.408	안정 성	인문계열	20	3.40	1.05	1.118
	사회계열	86	3.33	0.90			사회계열	86	3.43	0.83	
	교육계열	40	3.20	1.18			교육계열	40	3.43	1.03	
	공학계열	40	3.45	0.90			공학계열	40	3.48	0.96	
	자연계열	35	3.37	0.97			자연계열	35	3.37	1.03	
	의학계열	63	3.22	1.10			의학계열	63	3.67	0.88	
	예체능계열	39	3.38	1.04			예체능계열	39	3.18	1.12	
	합계	323	3.31	1.03			합계	323	3.44	0.96	
	합계	323	3.31	1.03			합계	323	3.44	0.96	

(표계속)

(표계속)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의사 소통/ 인간 관계	인문계열	20	3.75	1.02	1.264	전반 적인 직장 만족 도	인문계열	20	3.25	0.85	1.322
	사회계열	86	3.40	0.92			사회계열	86	3.29	0.84	
	교육계열	40	3.70	0.85			교육계열	40	3.50	0.75	
	공학계열	40	3.48	1.06			공학계열	40	3.13	0.76	
	자연계열	35	3.60	0.77			자연계열	35	3.37	0.69	
	의학계열	63	3.56	0.88			의학계열	63	3.43	0.78	
	예체능계열	39	3.28	0.83			예체능계열	39	3.15	0.78	
	합계	323	3.50	0.91			합계	323	3.31	0.79	
임금	인문계열	20	2.85	0.67	1.511						
	사회계열	86	2.99	0.85							
	교육계열	40	3.13	0.94							
	공학계열	40	2.88	0.94							
	자연계열	35	3.03	0.79							
	의학계열	63	3.17	0.93							
	예체능계열	39	2.69	1.06							
	합계	323	2.99	0.90							

마. 취업준비 행태에 따른 현재 일자리 유무의 차이 분석

일자리 유무에 따른 취업준비 행동의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표 24>), 일자리 유무에 따라 취업사전관리 요소인 전공공부 및 학점에는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취업에 성공한 집단의 학생들은 취업정보 탐색 요소인 “미래직업 업무내용 인지여부” 및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에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표 24> 일자리 유무에 따른 취업사전 관리 및 취업정보 탐색의 차이

		일자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취업 사전 관리	전공공부	예	352	3.58	0.47	0.629
		아니오	106	3.54	0.56	
	학점평점	예	335	81.46	10.37	-0.201
		아니오	102	81.69	9.20	
취업 정보 탐색	미래직업 업무내용 인지여부	예	245	3.99	0.62	3.056**
		아니오	66	3.73	0.56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예	244	3.88	0.65	3.635***
		아니오	66	3.55	0.64	
	미래직업의 현재 일(전공)과의 관련성	예	245	4.09	1.10	0.245
		아니오	66	4.05	1.02	

반면, 실질적인 직접구인활동에 따른 현재 일자리 유무에 따르면(<표 25>), 구직활동 경험 여부($X^2=5.958$, $p<0.05$), 직업훈련 경험여부($X^2=4.331$, $p<0.05$), 취업정보검색 경험여부($X^2=6.246$, $p<0.05$), 학교지원서비스 이용($X^2=4.526$, $p<0.05$)에 있어서 경험이 있었던 집단은 현재 취업에 성공해 있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5〉 직접구직활동 여부에 따른 현재일자리 유무의 차이

			현재 일자리 유무			X ²				현재 일자리 유무			X ²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구직 활동 경험 여부	아니오	N	87	39	126	5.958 *	적성 흥미 검사 경험	아니오	N	267	84	351	0.524
		%	69.0	31.0	100				%	76.1	23.9	100	
	예	N	265	67	332			N	85	22	107		
		%	79.8	20.2	100				%	79.4	20.6	100	
	전체	N	352	106	458			N	352	106	458		
		%	76.9	23.1	100				%	76.9	23.1	100	
직업 훈련 경험 여부	아니오	N	311	101	412	4.331 *	현재 박람회 경험 여부	아니오	N	310	99	409	2.421
		%	75.5	24.5	100				%	75.8	24.2	100	
	예	N	41	5	46			N	42	7	49		
		%	89.1	10.9	100				%	85.7	14.3	100	
	전체	N	352	106	458			N	352	106	458		
		%	76.9	23.1	100				%	76.9	23.1	100	
면접 훈련 경험 여부	아니오	N	290	95	385	3.184	구직 정보 인터넷 업로드	아니오	N	269	87	356	1.505
		%	75.3	24.7	100				%	75.6	24.4	100	
	예	N	62	11	73			N	83	19	102		
		%	84.9	15.1	100				%	81.4	18.6	100	
	전체	N	352	106	458			N	352	106	458		
		%	76.9	23.1	100				%	76.9	23.1	100	
취업 정보 검색 경험 여부	아니오	N	141	57	198	6.246 *	워크넷 검색 경험 여부	아니오	N	278	91	369	2.457
		%	71.2	28.8	100				%	75.3	24.7	100	
	예	N	211	49	260			N	74	15	89		
		%	81.2	18.8	100				%	83.1	16.9	100	
	전체	N	352	106	458			N	352	106	458		
		%	76.9	23.1	100				%	76.9	23.1	100	
취업 부탁 경험 여부	아니오	N	262	85	347	1.470	고용 안정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아니오	N	331	103	434	1.613
		%	75.5	24.5	100				%	76.3	23.7	100	
	예	N	90	21	111			N	21	3	24		
		%	81.1	18.9	100				%	87.5	12.5	100	
	전체	N	352	106	458			N	352	106	458		
		%	76.9	23.1	100				%	76.9	23.1	100	
학교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아니오	N	272	92	364	4.526*	사실 취업 사이트 정보 검색 경험	아니오	N	194	68	262	2.718
		%	74.7	25.3	100				%	74.0	26.0	100	
	예	N	80	14	94			N	158	38	196		
		%	85.1	14.9	100				%	80.6	19.4	100	
	전체	N	352	106	458			N	352	106	458		
		%	76.9	23.1	100				%	76.9	23.1	100	
방문 부탁 경험 여부	아니오	N	271	88	359	1.748	사실 취업 알선 기관 상담 경험	아니오	N	334	104	438	2.031
		%	75.5	24.5	100				%	76.3	23.7	100	
	예	N	81	18	99			N	18	2	20		
		%	81.8	18.2	100				%	90.0	10.0	100	
	전체	N	352	106	458			N	352	106	458		
		%	76.9	23.1	100				%	76.9	23.1	100	

〈표 26〉 여대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취업여부 (미취업=0, 취업=1)			근무형태 (계약직=0, 정규직=1)			
		B	S.E.	유의확률	B	S.E.	유의확률	
학교 특성	학교유형재분류	-0.624	0.513	0.224	-1.379	0.748	0.065	
	학교소재지	0.847	0.444	0.057	-0.422	0.574	0.462	
	전공 (더미= 사회계열)	인문계열	0.949	0.915	0.300	-1.250	0.908	0.168
		교육계열	-0.026	0.614	0.966	1.286	1.038	0.216
		공학계열	0.308	0.823	0.708	1.580	1.020	0.121
		자연계열	-0.570	0.588	0.332	-1.562	0.906	0.085
		의학계열	0.759	0.780	0.330	-0.027	0.932	0.977
		예체능계열	-0.656	0.589	0.265	-0.424	0.770	0.582
(요인1) 취업 사전 관리	전공공부	-0.103	0.480	0.830	-1.286	0.762	0.092	
	학점(평균)	0.001	0.022	0.975	-0.016	0.031	0.612	
	휴학여부	0.137	0.476	0.773	-0.391	0.643	0.543	
	교내아르바이트경험	0.466	0.491	0.342	0.415	0.626	0.508	
	영어교육경험	-0.228	0.417	0.584	-1.560	0.601	0.009	
	제2외국어교육경험	0.341	0.463	0.461	0.634	0.617	0.304	
	취창업교육훈련경험	0.769	0.618	0.213	-0.767	0.652	0.239	
	자격증유무	0.115	0.378	0.761	-0.866	0.533	0.104	
(요인2) 취업 정보 탐색	해외연수경험	2.036	1.208	0.092	1.282	1.101	0.244	
	미래직업구체적인계획여부	-0.473	0.666	0.478	0.169	0.945	0.858	
	미래 직업 업무인지	0.409	0.444	0.357	-0.156	0.585	0.790	
	미래 직업 전망인지	0.829	0.415	0.046	1.282	0.537	0.017	
(요인3) 직접 구직 활동	미래 직업과 전공연계성	-0.134	0.182	0.461	-0.034	0.265	0.899	
	구직활동 경험여부	0.531	0.584	0.363	2.450	1.004	0.015	
	직업훈련 경험여부	1.432	0.933	0.125	0.288	0.790	0.715	
	취업정보검색 경험여부	0.448	0.636	0.481	-1.727	1.017	0.090	
	취업부탁 경험여부	0.029	0.539	0.957	0.338	0.782	0.665	
	학교지원서비스 이용경험여부	0.209	0.557	0.707	1.058	0.731	0.147	
	방문부탁 경험여부	-0.277	0.509	0.587	-0.981	0.725	0.176	
	면접훈련 경험여부	0.238	0.643	0.711	0.669	0.721	0.353	
	흥미적성검사 경험여부	-0.983	0.556	0.077	-0.124	0.785	0.874	
	취업박람회 경험여부	0.350	0.805	0.664	0.663	0.861	0.442	
	구직정보인터넷업로드 경험여부	-0.005	0.583	0.993	-1.294	0.736	0.078	
	워크넷검색 경험여부	0.055	0.604	0.927	-1.390	0.707	0.049	
	고용안정센터상담 경험여부	0.203	1.202	0.866	-1.948	1.083	0.072	
	사설취업사이트정보검색 여부	0.412	0.553	0.457	1.846	0.779	0.018	
사설취업알선기관상담경험여부	0.040	1.205	0.973	-2.614	1.286	0.042		
상수	-2.122	2.525	0.401	6.231	3.490	0.074		
N		272			208			
분류예측 정확(%)		80.1%			86.5%			
-2 Log 우도		216.467			133.256			
R ²		0.321			0.530			

3. 여대생의 취업성과분석 및 예측분석

가. 여대생의 취업 및 근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여대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특성 및 취업준비행동 요소(제 1요소 : 취업사전관리, 제 2요소 : 취업정보탐색, 제 3요소 : 직접구직활동)를 독립변수 현재 "취업여부(취업, 미취업)"를 1차 종속변수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같은 독립변수로 "근무형태(정규직, 비정규직)"를 2차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표 26>), 취업정보탐색요소 중 "미래 직업 전망인지"는 현재 취업하고 있을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구직활동 여부 및 사설 사이트를 통한 구직정보 검색은 졸업생의 정규직으로의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공부, 워크넷 검색 및 사설기관의 상담경험은 정규직으로의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일자리의 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월평균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 행동 각 요인 보다는 학교유형(전문대, 4년제) 및 전공(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은 취업자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구직관련정도의 업로드는 임금에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27〉 여대생의 취업성과(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t		
(상수)		72.074	45.700		1.577	0.117	
학교 특성	학교유형(0=2전문대, 1=4년제)	19.522	8.696	0.203	2.245	0.026	
	학교소재지	12.073	7.763	0.117	1.555	0.122	
	전공	인문계열	-14.561	15.363	-0.073	-0.948	0.345
		교육계열	-3.522	12.437	-0.026	-0.283	0.777
		공학계열	29.676	13.501	0.174	2.198	0.029
		자연계열	-0.822	13.351	-0.005	-0.062	0.951
		의학계열	46.504	12.155	0.408	3.826	0.000
예체능계열	7.131	11.876	0.051	0.600	0.549		
(요인1) 취업 사전 관리	전공공부	-10.549	9.067	-0.092	-1.164	0.246	
	학점(평균)	0.092	0.406	0.017	0.227	0.821	
	휴학여부	-6.201	9.664	-0.051	-0.642	0.522	
	교내아르바이트경험	13.085	8.689	0.116	1.506	0.134	
	영어교육경험	8.543	8.015	0.089	1.066	0.288	
	제2외국어교육경험	-7.091	8.705	-0.061	-0.815	0.416	
	취·창업교육훈련경험	-1.873	9.350	-0.015	-0.200	0.842	
	자격증유무	-1.687	7.014	-0.018	-0.240	0.810	
	해외연수경험	10.010	14.521	0.054	0.689	0.492	
(요인2) 취업 정보 탐색	미래직업구체적인계획여부	8.652	12.059	0.055	0.717	0.474	
	미래직업 업무 내용 인지여부	-4.035	9.057	-0.052	-0.446	0.657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7.345	8.254	0.102	0.890	0.375	
	미래직업의 현재 일(전공)과의 관련성	3.922	3.658	0.085	1.072	0.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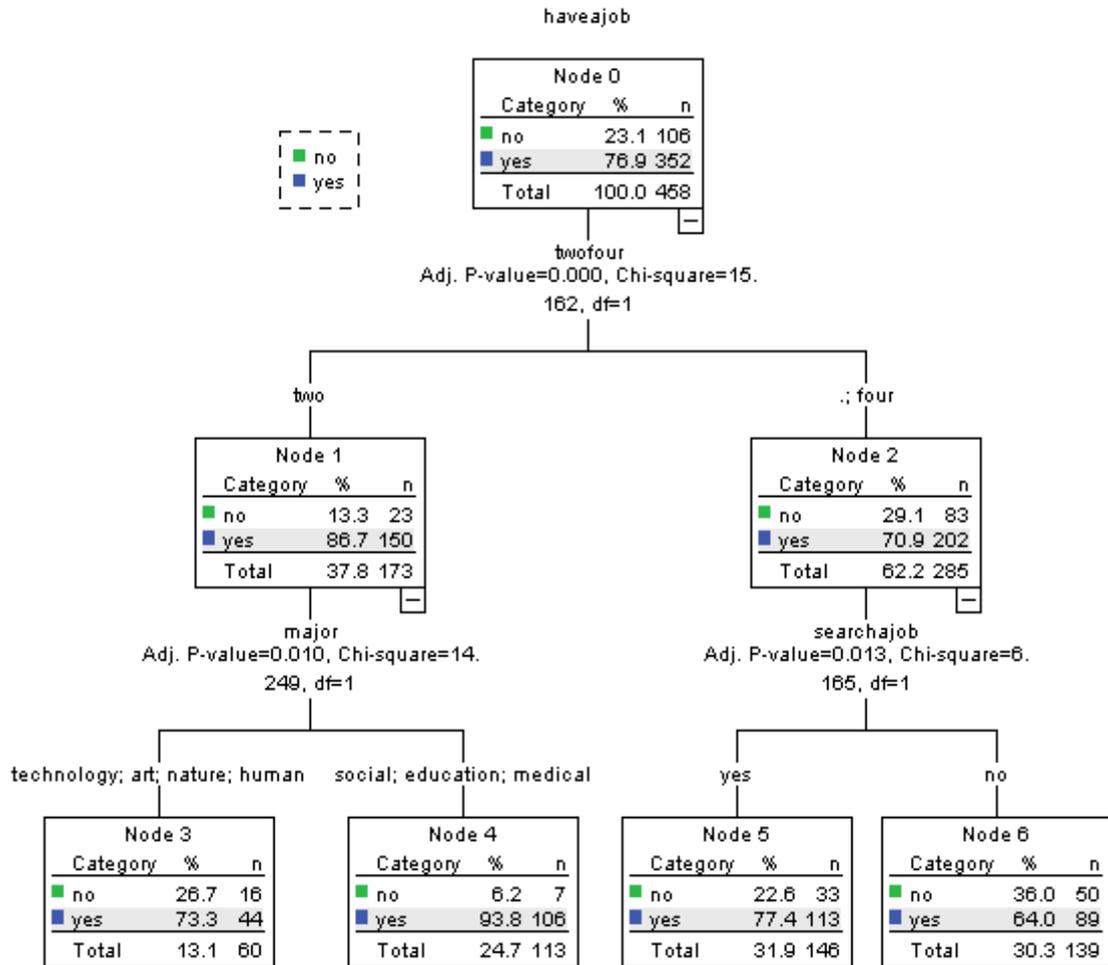
(표계속)

(표계속)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t		
(요인3) 직접 구직 활동	구직활동경험여부	8.129	12.005	0.070	0.677	0.499
	직업훈련경험여부	-14.042	11.838	-0.096	-1.186	0.237
	취업정보검색경험여부	-11.303	21.192	-0.114	-1.010	0.314
	취업부탁경험여부	11.373	9.164	0.109	1.241	0.216
	학교지원서비스이용경험여부	0.676	8.844	0.006	0.076	0.939
	방문부탁경험여부	10.243	9.018	0.093	1.136	0.258
	면접훈련경험여부	10.509	9.783	0.088	1.074	0.284
	흥미적성검사경험여부	-5.890	9.679	-0.054	-0.609	0.544
	취업박람회경험여부	16.189	11.718	0.114	1.382	0.169
	구직정보인터넷업로드경험여부	-20.918	9.857	-0.186	-2.122	0.035
	워크넷검색 경험여부	7.938	10.021	0.067	0.792	0.429
	고용안정센터상담경험여부	6.571	15.922	0.033	0.413	0.680
	사설취업사이트정보검색 경험여부	-6.169	9.202	-0.064	-0.670	0.504
	사설취업알선기관상담 경험여부	-20.317	15.782	-0.097	-1.287	0.200
F	1.837***					
R ²	0.284					

나.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통한 취업성공 요소 예측

취업성공 여부를 예측해 낼 수 있는 분류방법인 의사결정 나무모형을 통해 취업성공 분류체계 모형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취업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취업 준비 행동요인 중 의사결정 나무모형에 적합한 이분형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분석결과는 전체 분산의 76.9%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먼저 여대생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분류요소는 "대학유형"으로 전문대와 4년제 졸업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비율이 4년제 학생의 취업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 분류요소로는 전문대 학생의 경우 전공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사회계열, 교육계열, 의약계열의 전공자들은 기타 전공자들에 비하여 취업에 성공해 있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년제 졸업자들의 경우, 직업정보의 검색여부에 따라 취업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의사결정 나무분석 모형

다. 취업성공 여부의 판별분석

마지막으로 판별분석을 통해 여대생의 취업성공 요인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류는 단계선택법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을 판별해 내고자 하였다. 분석은 전체 분산의 74.6%의 분류정확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28〉 판별분석 분류결과

현재 일자리 유무			예측 소속집단		전체
			예	아니오	
원래값	N	예	44	13	57
		아니오	56	159	215
	%	예	77.2	22.8	100
		아니오	26.0	74.0	100
분류정확			74.6%		

〈표 29〉 판별분석 기초통계 결과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구조행렬
학교유형재분류	- 0.406	-0.523
해외연수경험	0.416	0.236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0.618	0.636
취업정보검색경험여부	0.572	0.518

분석결과에 따르면(〈표 30〉 참고), 4년제 일수록 미취업 상태에, 해외연수경험이 있을수록,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가 높고, 취업정보 검색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상태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표 30〉 Fisher의 선형 판별 분류함수

	취업여부	
	아니오	예
학교유형(전문대=0, 4년제=1)	10.501	9.700
해외연수경험	1.916	3.579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9.840	10.735
취업정보검색경험여부	2.886	3.990
(상수)	- 27.974	- 30.55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4차-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대생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취업준비행동 및 취업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취업준비 행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대생들은 일반적으로 전공공부 및 학점관리, 취업을 위한 영어공부, 자격증 취득 등 “취업사전관리”는 비교적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취업정보 검색, 상담, 적성검사, 박람회 참석, 고용안정센터 이용, 학교지원 서비스 이용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대생의 초기 사회진입시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70%이상이 취업 상태에 있고, 취업자의 77%에 가까운 비율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평균 임금은 130만원내 외로, 여대생들은 직장 만족도 중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점 미만의 “불만족”을 보였고, 복지후생 수준 역시 “보통” 수준으로 상당수의 여대생들은 불만족한 취업상태에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셋째, 여대생의 “취업정보탐색” 활동에 있어서 전문대 학생은 4년제 졸업자에 비하여 미래 직업의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희망직업 전망, 보수 등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았으며, 그러한 미래직업에 대한 인지수준은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통해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하여 비교적 “직업과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4년제 학생은 전공공부 및 영어공부, 자격증 취득에 관심 및 “취업사전관리”에 많은 준비를 하는 반면, 전문대학생의 경우 보다 “직접구직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두 집단의 취업준비 행동에도 다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전공에 따른 특성에 따르면 교육계열 및 의학계열 전공자들은 전공과 관련된 직장에서의 진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직업목표 및 업무내용, 직업전망, 임금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반면에 영어학습, 자격증 취득, 직접구직활동 등 일반적인 취업구직활동에는 낮은 참여를 보여,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취업을 위한 “시험(국가고시)”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계열 및 공학, 자연계열 학생들의 구직활동, 취업정보검색, 영어 준비 등 “일반적인 구직활동” 참여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전공자들의 일자리 임금의 비율은 타 전공 졸업생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고, 인문계열의 임금은 가장 낮아 이들 직업의 경우 보다 불안정하고 잦은 이직이 발생할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직접적인 구직활동 경험, 직업훈련참여, 취업정보검색 및 학교의 상담 서비스 이용자들은 취업에 성공해 있을 비율이 높아, 취업준비행동 중 “직접적인 구직활동 요인”은 취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나무트리 의사결정 결과 역시 학교 유형 및 전공, 구직정보 검색 경험이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미래직업에 대한 높은 인식 역시 취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다양한 취업준비 행동은 종속변수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다양한 행동을 준비하는 비율 자체가 낮기(상당 변수에서 20% 미만의 준비 비율을 보임)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은 개인위주의 일반적인 소극적인 취업준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정보 및 기관의 활용,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용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여대생들의 학교 및 국가에서의 다양한 진로개발 서비스에 대한 인지부족과 소극적인 구직활동에서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 및 학교의 진로개발 서비스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저학년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로개발 및 진로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대생들의 초기 진입한 일자리는 비교적 임금 및 복지수준이 낮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대생들의 임금만족도는

평균을 밑돌고 이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대생의 불안정한 사회진입으로 인한 불만족이 잦은 이직 및 체계적인 경력개발의 어려움 또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 진입 후에도 계속해서 커리어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사회지원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통해 취업예측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검증해 보고자 시도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패널의 특성상 대상변수의 면밀한 구성 및 다양한 변수의 세밀한 값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당수의 단순 이분형 변수들을 활용함으로, 제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변수설정 및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전체 표본을 대표 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연구대상 설정 등 체계적인 연구 설계가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분석된다면 향후 여대생의 취업준비 활동 및 학교지원서비스, 국가 지원 서비스의 실태의 파악 뿐 아니라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 등 국가기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정책방안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강이수, 신경아(2001). 여성과 일. 동녘.
- 김경근, 변수용(2007).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대학진학 단계에서의 질적 차별화를 중심으로. 제6회 한국교육패널 학술대회.
- 김영실, 임성문(2011).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자대학생들의 직업결정과정: 근거이론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03-329.
- 박가열, 천영민(2009).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 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3(1), 29-59.
- 박미경, 이현림(2008).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239-259.
- 박천수(2011). 노동시장 이행에서 외모차별의 영향. 제6회 한국교육패널 학술대회.
- 박환보(2011).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개인배경과 대학 특성의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25.
- 신선미, 정경아, 박수미, 최윤정(2007).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도구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유한구(2010). 대학생 취업준비 노력의 실태 분석. 대졸자 청년 노동시장 이행 세미나 자료집.
- 이수영, 이영민(2009).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분석. 한국공학교육학회지, 12(3), 73-79.
- 이영민, 이수영(2010). 대학 이공계열 전공 여학생의 취업준비행동 분석. 평생교육·HRD연구, 6(2), 77-98.
- 이윤우, 진석연(2011). 여자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직업카드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2), 135-157.
- 임정준(2010).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장보운(2007). 한국 여성의 취업과 차별 : 연령, 학력, 용모차별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장수명(2010). 대학 전공별 노동시장 이행의 성과. 대졸자 청년 노동시장 이행 세미나 자료집.
- 전연진(2008). 대학생이 지각한 희망직업-전공 일치 여부와 취업 준비행동. 대학생 직업세계 인식 및 직업선호 실태' 심포지엄.
-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2011).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53-78.
- García-aracil, A. (2008). College Major and the Gender Earnings Gap: A Multi-country Examination of Postgraduate Labour Market Outcom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9(8), 733-757.
- Lois, J. (2000). Do colleges shortchange women? Gender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from college to work.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471-475.
- Mau, W. C., & Kopischke, A. (2001). Job Search Methods, Job Search Outcomes, and Job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es: A Comparison of Race and Sex.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8, 141-149.
- Oettinger, G.(1996). Statistical discrimination and the early career evolution of the black-white wage gap. *Journal of Labour Economics*, 14(1), 52~78.

- Mano-Negrin, R. & Shay S. T, (2004). Job search modes and turnove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9(5), 442 - 458.
- Walters, D. (2006). An examination of the school-to-work transitions of male and female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of applied and liberal arts programs in Canada. *Higher Education Policy*, 19(2), 225-250.

❖ Abstract ❖

The Effects of College Women's Job Preparation Behavior on Their
Transition to Labor Market

Lee, Youngmin, Lim, Jung-Ye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s of college women's job preparation behavior on their successful transition to labor market, using the data of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from year 2008(4th) through year 2011(7th). In the results, college women made efforts to pursue the good grade, professional certification as well as to learn their major and business english. However, the efforts of seeking the employment information, doing job experience, and using Work-Net and employment service centers, which are considered as public employment service. 4-year college women have done these job preparation behaviors frequently than those of 2-year college women. In terms of their employment status and outcomes, the college graduated women have satisfied with their job situation despite they are not satisfied with wage. The determinantal factors impacting their successful transition to labor market are college type, major, information on future job and job seeking information. Other factors are not. We suggested the colleges' role of supporting job preparation behaviors.

Key words: Job Preparation Behavior, Transition to Labor Market, Employment Outcomes